

# 불교문헌학의 현재

## -『보살장경』을 중심으로-

김보리(동국대)

### 1. 머리말

불교학의 역사는 불교문헌학과 더불어 시작되고 발전되어 왔다. 불교의 언어, 금석문, 경전 등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불교학 방법론의 기본이 되어 왔고, 불교학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불교의 역사를 탐구하고 밝혀 왔다. 이러한 불교문헌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사본 연구는 불교학의 외연을 넓히고 불교의 역사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근래에 파키스탄 북부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방대한 사본의 연구 성과들은 불교 연구에 새로운 고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본들은 그 자체로 역사적·문헌적 증거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19세기 네팔에서,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신장(新疆, Xinjian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굴된 산스크

리트 사본들은 불교학의 흐름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이 산스크리트 사본들은 팔리 전통에는 남아 있지 않은 교리와 학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이는 곧 초기 불교학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불교학자들이 테라바다(Theravāda) 불교의 팔리(Pali) 문헌만을 붓다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고전 한문이나, 티벳어 또는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언어로 편찬된 문헌들의 연구 가치 또한 인정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듯이, 한역 대장경에는 팔리어를 포함한 어떤 인도 언어를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는 방대한 문헌이 보존되어 있다. 새로운 산스크리트 사본에 대한 연구는 한역 경전들의 권위를 확인하고, 기원후 2세기경부터 한역된 문헌들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팔리어 자료보다도 수정·편집의 과정을 덜 겪었음을 밝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현대 불교문헌학의 분야는 초기대승문헌과 그 사본에 대한 연구이다. 그 이유는 첫째, 초기대승문헌은 불교사의 가장 큰 변혁기라고 할 수 있는 대승불교 발단 시기의 저작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당시 인도의 시대적 특징이나 교리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둘째, 이 사실은 다른 경전들과 광범위한 인용과 모방을 취하면서 성립된 대승경전의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부각된다. 즉, 문헌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당시 불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해당 경전의 사본이 존재할 때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보살장경(菩薩藏經, *Bodhisattvapiṭakasūtra*)』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살장경』은 21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그 산스크리트 원전이 전해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초기대승경전이다. 그러나 2006년 스코옌 컬렉션(The Schøyen

Collection)에서 종려나무 잎 12장 분량에 해당하는 사본 파편이 발견된 이후, 2010년 현재 완전한 산스크리트 사본이 입수되어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 2. 『보살장경』의 문헌적 위상과 특징

『보살장경』은 우리에게 『대보적경(大寶積經, *Mahāratnakūṭa*)』의 열두 번째 경인 『보살장회(菩薩藏會)』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장(玄奘)에 의해 645년에 번역된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완전한 판본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원전에는 또 하나의 한역과 티벳어역이 있다. 한역은 법호(法護, Dharmarakṣa)에 의해 번역(1018~1058)된 『대승보살장정법경(大乘菩薩藏正法經: T.316, K.1487)』이 그것이고, 티벳어역은 800년경에 수렌드라보디(Surendrabodhi)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번역인 현장의 한역은, 법호의 한역과 티벳어역이 열한 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열두 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장이 열두 번째 품을 따로 만들고, 반야바라밀과 더불어 보살행을 비롯한 경전의 주요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단일한 문헌 형태로서의 『보살장경』이 정확히 언제 출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약 2세기경에 출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보적경』의 49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보살장경』은 제일 긴 대승경전 중 하나이다. 그 제목이 나타나고 있듯이, 이 방대한 분량에 걸쳐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보살사상에 대한 것이다. 특히 6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에 경전의 반 이상이 할애되어 있다. 이 6바라밀은 아직 초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보살장경』보다 분량은 훨씬 짧으나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무진의보살경

(無盡意菩薩經, *Akṣayamatīnirdeśasūtra*)<sup>1)</sup>이나, 『보게보살소문경(寶髻菩薩所問經, *Ratnāṇḍapariṣcchā*)』의 그것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보살장경』의 또 다른 주요 가르침 중 하나는 보살의 이상이다. 출가 중심을 표방하면서 붓다가 되기 이전 현세에서의 보살행보다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이타행을 추구하는 것이 그 이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리적 특징은 현재까지 불교학계에서 이 문헌이 주목 받아 왔던 대표적 이유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보살장경』의 연구 가치는 이 문헌의 또 다른 특징들에서 기인한다. 그 특징으로 먼저 보살장(*Bodhisattvapīṭaka*)이라는 말이 불전에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보살장경』의 가르침은 많은 경전들에서 인용되는데, 이 때 등장하는 보살장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 독립된 문헌으로서의 『보살장경』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늦어도 2세기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 말은 보살사상을 공유하는 문헌들의 범주로서 역할했을 수 있다. 법장부(法藏部, *Dharmaguptaka*)가 경장·율장·논장·다라니장과 더불어 보살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보살장경』이라는 문헌이 먼저 성립되어 다른 문헌들의 원천으로 인용되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경향을 공유하던 문헌들의 유행이 『보살장경』을 그 결과로 낳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와더(Anthony. K. Warder)<sup>1)</sup>와 웨이만(Alex Wayman)<sup>2)</sup>은 보살장이 대중부(大衆部, *Mahāsaṃghika*)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와더는 『성실론(成實論, *Satyasiddhiśāstra*)』에 있는 불교 경전의 다섯 가지의 모음, 즉 다섯 장(藏, *piṭaka*)의 목록 중 하나가 보살장이라는

1) Anthony K. Wader, *Indian Buddhism*,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80.

2) Alex Wayman, *Ethics of Tibet : Bodhisattva Chapter of Tsong-kha-pa's Lam Rim Chen Mo*,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것을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성실론』이 대중부의 하위 부파인 다문부(多聞部, Bahuśrūtiya)의 문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웨이만은 대중부의 추종자들이 붓다의 전생을 모델로 하여 보살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살장에 등장하는 붓다의 전생담(jātaka)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파겔(Ulrich Pagel)<sup>3)</sup>이 지적하고 있듯이, 대중부가 보살장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나 범주로 취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붓다의 전생담과 보살 개념의 성립 관계를 오직 대중부와 연결시키는 것 역시 완전히 지지되기 힘든 견해이다. 그러나 이 문헌의 기원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살장경』의 이러한 특징은 그 문헌의 성립 배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기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짚고 넘어 가야 할 『보살장경』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초기대승문헌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이 주제는 몇몇 학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무진의보살경』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아래의 ‘문헌간의 연구’에서 소개될 것이다.

### 3. 한역 및 티벳어역 연구

#### 1) 문헌간의 연구

현재까지 대승불교 연구는 산스크리트 원전의 존재 여부, 또는 동북아시아 불교문화권의 특정한 요구와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구가 전무한 문헌들도 적지 않다. 그 예가 되는 문헌의 하나로 나티

3) Ulrich Pagel, *The Bodhisattvapiṭka : Its Doctrines, Practices and their Position in Mahāyāna Literature*, Tring: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1995.

에르(Jan Nattier)<sup>4)</sup>가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 『옥라빠리쁘리차(Ugraparipṛcchā, 法鏡經, 郁迦羅越問菩薩行經, 大寶積經 郁伽長者會)』를 들 수 있다. 최초의 보살경 중의 하나인 『옥라빠리쁘리차』는 인도 및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헌으로 다른 대승경전에서 빈번하게 인용된다. 나티에르는 이 경전을 ‘인도 불교사에서 보살사상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흔적을 볼 수 있는 창’으로 설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원전이 없으며,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문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5)</sup>

『보살장경』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그 연구 성과가 『옥라빠리쁘리차』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원전의 부재는 특히 서양에서 이 문헌이 독립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일본과 한국에서도 전문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이 문헌은 일찍이 라모뜨(Étienne Lamotte)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기는 했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들은 『보살장경』과 초기대승문헌들과의 유사성 및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해서 도출되었다.

우이 하쿠주(宇井伯壽)<sup>6)</sup> 등과 같은 일본 학자들에 이어, 지키도 타카사키(高崎直道)<sup>7)</sup>는 1974년에 『인도학불교학연구(印度學佛敎學研

4) Jan Nattier, *A Few Good Men : The Bodhisattva Path according to The Inquiry of Ugra(Ugraparipṛcchā)*, Honolulu, 2003.

5) 나티에르는 이 문헌이 ‘대승불교에 대한 상세한 개론서’인 폴 윌리엄스(Paul Williams)의 *Mahāyāna Buddhism : The Doctrinal Foundation*(London : Routledge, 1989)에서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6) 宇井伯壽, 『寶性論研究』, 東京 : 岩波書店, 1959.

7) 高崎直道, 『〈菩薩藏經〉について : 玄奘譯『大菩薩藏經』を中心に』, 『印度學佛敎學研究』 22卷 2號 (通卷44), 1974.

究』에 짧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보살장경』과 『무진의보살경(無盡意菩薩經, *Akṣayamatinirdeśasūtra*)』, 『대애경(大哀經, *Tathāgata-mahākaraṇanirdeśa*)』, 그리고 『지광명장엄경(智光明莊嚴經, *Jñānā-lokālaṃkāra*)』의 한역본이 공유하고 있는 구문들을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타카사키는 이 구문들이 특히 『보살장경』과 『대애경』에서 발견되며, 또한 비교적 적기는 하지만 『지광명장엄경』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이 구문들이 『무진의보살경』을 비롯한 나머지 두 경들에 먼저 도입되었고, 『보살장경』에 속하게 된 것은 그 이후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불과 아홉 페이지에 불과한 그 논문에서 해당 문헌들의 성립 시기나 영향 관계에 대한 견해는 제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는 『보살장경』과 『무진의보살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실제로 『보살장경』은 나머지 세 경전 모두와 해당 구문들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문헌이며, 『무진의보살경』은 오직 『보살장경』과만 상응하는 구문들을 가지고 있다.

타카사키에 이어 이 주제에 주목한 학자는 웨이만이다.<sup>8)</sup> 웨이만은 『무진의보살경』과 『보살장경』의 삼매 목록을 비교<sup>9)</sup>하는 연구를 하면서, 『보살장경』의 삼매 목록이 그에 상응하는 『무진의보살경』의 목록에 비해 짧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웨이만은 이 사실을 근거로 타카사키와 반대로, 『보살장경』이 『무진의보살경』을 비롯한 다른 경전들에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나아가 그는 『

8) Alex Wayman, "The Samādhi Lists of the *Akṣayamatinirdeśasūtra* and *Mahāvīryūtpatti*," *Acta Orientalia, Hungarian Academy of Science*, 34, 1980.

9) 두 경전의 삼매 목록에 관련된 분석은 다음 두 문헌에서도 접할 수 있다: Jens Braarvig, *Akṣayamatinirdeśasūtra : The Tradition of Imperishability in Buddhist Thought*, Volume 2, Oslo, 1993 ; Ulrich Pagel, *The Bodhisattva-piṭka : Its Doctrines, Practices and their Position in Mahāyāna Literature*, Tring :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1995.

보살장경』이 다른 경전들의 원전에 해당하는 문헌이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웨이만의 이 흥미로운 가설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이미 문헌화된 『보살장경』이 원전으로 쓰였다면, 그 영향은 더욱 분명한 형태로 다른 경전들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증거를 밝히는 작업은 해당 경들의 산스크리트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쉽지 않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보살장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경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보살장이라는 범주 하에 유행하고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경전들이 그들 밖의 제3원천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웨이만의 견해는 『보살장경』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썼던 파겔은<sup>10)</sup>에 의해 수용된다. 파겔은 『무진의보살경』의 상응구들이 『보살장경』의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은 편집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파겔은 『보살장경』이 『무진의보살경』 이전의 문헌이라는 견해에 타당한 문헌적 근거를 추가할 수 있었지만, 웨이만의 가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 못했다.

이 문제점을 인식하였던 또 한 명의 학자는 『무진의보살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브라빅(Jens Braarvig)<sup>11)</sup>이다. 브라빅은 이미 완결된 형태로 전해지는 이 경전들의 번역본을 통해서 그 원전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헌을 찾는 것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가설은 제3원천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즉 각 경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구들은 초기대승경전들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구전되고 있었고, 불전 편찬이 시작되었을 때 저자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전까지의 학자들이 제시하였던 견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2006년 브라빅과 스코

10) Ulrich Pagel, "The Bodhisattvapitāka and Akṣayamatinirdeśa," ed., T. Skorupski, *The Buddhist Forum*, 3, London, SOAS, 1994.

11) Jens Braarvig, *Akṣayamatinirdeśasūtra* Volume 1, 2, Oslo, 1993.

엔 컬렉션에서 『보살장경』의 사본을 공동으로 작업한 파젤에 의해 잠정적으로 수용되게 된다.

## 2) 독립적 연구

다른 초기대승 문헌과의 연계성이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살장경』의 문헌 자체에 대한 소수의 전문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소개할 학자들은 각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살장경』을 연구한 페더슨(Priscilla Pederson)과 파젤이다.

페더슨<sup>12)</sup>의 박사논문 주제는 『보살장경』의 열 번째 품, 선정바라밀(禪定波羅蜜 / 靜慮波羅蜜, Dhyānapāramitā)이다. 한역을 그 원전으로 한 이 논문은 『보살장경』에 대한 최초의 장편연구이다. 그 내용은 『선정바라밀품』에 나타난 주요 교리에 대한 분석과 그 한역에 대한 영문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바라밀품』은 4선정에 대한 규격화된 설명을 시작으로 다섯 가지 신통력(abhijñā-pañca), 101가지의 긴 삼매 목록 등의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통상 10개 내지는 11개의 주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페더슨의 연구는 이를 총 18개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논문은 『보살장경』과 다른 초기대승 문헌에 나타난 선정을 연구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연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자료가 되기는 힘들다. 우선 무엇보다도,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sup>13)</sup> 다음으로 티벳어 번역을 사실상 전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 원전의 언어로 남아 있지 않은 문헌을 연구하

---

12) Priscilla Pederson, "The Dhyāna Chapter of the Bodhisattvapīṭaka Sūtra," PhD. dissertati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1976.

13) 필자 역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만 접할 수 있었다.

면서 서로 다른 번역본을 대조하는 작업은 연구 결과의 깊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페더슨의 연구에는 『보살장경』 문헌 자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역시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살장경』이라는 특수한 맥락 안에서 『선정바라밀품』을 분석하는 작업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페더슨의 연구 방식과 성과는 『보살장경』에 대한 기존의 부분적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보살장경』에 대한 진정한 전문 연구 결과는 파겔의 박사논문<sup>15)</sup>이다. 이는 1995년 출판된 이후 사실상 『보살장경』 연구의 유일무이의 결정적 자료로서, 현대 불교문헌학의 훌륭한 연구 모델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마지막 품인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 Prajñāpāramitā)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지만, 『보살장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또한 그 주요 챕터를 차지하고 있다.

모두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그 단행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챕터는 대승 불전에서 ‘보살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문헌으로서의 『보살장경』에 대한 탐구이다. 이를 통해 파겔은 방대한 문헌 자료들을 근거로 이전까지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는 이 문헌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보살장경』의 구조와 언어적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한 것이 두 번째 챕터이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보살장경』에 나타난 보살의 이상을 보살의 길, 서원, 수행 등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네 번째 챕터는 이 문헌에 나타난 보살사상의 주요 교리와 수행론을 다른 경전들과의 비교를 통해

14) 파겔은 심지어 그의 책(1995)에서 페더슨의 논문에 대하여 『보살장경』의 ‘많은 주요 특징들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선정바라밀품』의 연구에 있어 주의로 삼아야’ 한다고 표현했다.

15) Ulrich Pagel, *The Bodhisattvapiṭka : Its Doctrines, Practices and their Position in Mahāyāna Literature*, Tring: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1995.

상세히 연구하였다. 끝으로 다섯 번째 챕터는 『반아바라밀품』에 대한 영어번역과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과겔은 우선 한역을 배제하지 않고 티벳어역의 다른 판본들과 대조하여 교정 판본을 만든 후, 그것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원문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읽기는 특히 『반아바라밀품』의 번역과 주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초기대승 문헌에 얽힌 역사와 그 주요 교리들의 특징 및 성립과정을 유추하기 위해 다른 경전들을 대조 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겔의 연구 결과는 『보살장경』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그중에서도 특히 초기대승불교의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참고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과겔은 대승 경전으로서 『보살장경』의 중요성과 연구 가치를 분명하게 조명하였다. 그러나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장과 범호의 한역이 그의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이 연구의 아쉬운 점 중 하나로 향후 보다 주의깊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4. 『보살장경』의 사본 연구

##### 1) 스코엔 컬렉션

스코엔 컬렉션(The Schøyen Collection)은 1920년 노르웨이인 스코엔(M. O. Schøyen)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아들인 마틴 스코엔(Martin Schøyen)에 걸쳐 수집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사본 컬렉션이다.<sup>16)</sup> 여기에는 노르웨이 문헌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경의 시대별, 국가별 에디션을 비롯하여, 인류의 2000여 년의 역사가 담긴 문학, 예

---

16) 스코엔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schoyencollection.com](http://www.schoyencollection.com))를 참고.

술, 과학,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에서 불교 사본은 한문문헌을 포함하여 약 1500여 종에 이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본들은 주로 1993년에서 2000년에 걸쳐 입수되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Bamiyan) 석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대영(大英) 도서관(British Library) 소장의 60종의 사본과 함께 사해(死海) 불교 스크롤(Dead Sea Scrolls of Buddhism)이라 불린다. 종려나무 잎(palm leaf)이나 박달나무 껍질(birch bark), 동물 피지(皮紙)나 구리 동전 등에 옮겨진 이 사본들은 기원후 2세기에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불교 사본들 중 하나이다. 스코엔 컬렉션의 이와 같이 주요한 불교 사본들은 다른 분야의 사본들과 함께 전 세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물은 현재까지 3권에 걸쳐 출판되었다.<sup>17)</sup>

스코엔 컬렉션의 『보살장경』 사본은 모두 종려나무 잎(palm leaf) 12장<sup>18)</sup> 분량에 해당하는 파편들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약 5~6세기 브라흐미(Brahmī) 계열의 굽타(Gupta) 문자로 쓰인 16개 조각과 카로슈티(Karoṣṭhī) 문자로 쓰인 단 몇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츠다(Kazunobu Matsuda), 브라빅, 파겔 등이 이 파편들을 『보살장경』의 일부로 확인한 후, 브라빅과 파겔이 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두 학자는 조각난 사본들을 티벳어역 및 한역과 대조한 후 재구성하여, 그 결과물을 2006년에 출판하였다.<sup>19)</sup> 비록 『보살장경』의 전체 분량에

---

17) Jens Braarvig, ed., *Manuscripts In The Schøyen Collection : Buddhist Manuscripts* Volume I, II, III, Oslo : Hermes Publishing, 2002, 2004, 2006.

18) 이 한 장(folio)은 티벳어역 데르게 판본의 한 장과 비슷하고, 대정신수대장경 간행본 반쪽이나 3분의 1쪽 정도에 상당한다.

19) Jens Braarvig, ed., *Manuscripts In The Schøyen Collection : Buddhist Manuscripts* Volume III, Oslo: Hermes Publishing, 2006.

비하면 지극히 일부에 것이지만, 이는 인도 본토의 언어로 쓰인 이 경전의 사본에 대한 최초의 연구였다.

두 학자의 공동 연구 결과는 단순한 사본 에디션에 그치지 않는다. 80페이지에 이르는 그 내용은 파겔의 박사 논문 출판 이후에 업데이트된 『보살장경』에 대한 가장 유익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보살장경』의 문헌과 그 연구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요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열한 개의 각 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경의 대략적인 시놉시스를 제공한다. 이는 각 장의 주요 특징과 간단한 분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살장경』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훑어보고 싶은 독자에게 효율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보살장’이라는 말이 대승 불전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해가면서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 유추를 시도한다. 이 문제는 ‘보살장’과의 관계 위에서 『보살장경』의 성립 역사와 다른 초기대승 문헌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무진의보살경』, 『대애경』, 『지광명장엄경』과 『보살장경』이 공유하는 구절들과 각 경전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도 다뤄진다. 그들은 여전히 『보살장경』이 나머지 경들에 앞서 형성되었고, 다른 문헌들이 그 주요 구절들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도 불교 공동체에서 순환하고 있던 대승 문헌들의 공통된 줄기’에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는 브라빅의 가설 역시 이 부분에서 함께 받아들여진다.

다음으로 이 두 학자는 사본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사본의 파편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편집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작업을 위해 일차적으로 『보살장경』의 티벳어역 목판 인쇄물들과 사본들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티벳어역 판본의 비교 배치를 위해서는 브라빅이 『무진의보살경』의 티벳어 정판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식을 따랐다.<sup>20)</sup> 이어 한역을 포함한 번역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산스크리

트본을 편집하였다. 이 사본들은 종려나무 잎 12장 분량 중에서 3장 정도가 1품에, 6장이 4품에, 1장이 7품에, 2장이 9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본 조각들의 파손 정도가 심하고 분량 역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학자에 의해서 재구성된 원문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 산스크리트 원문은 해당 부분의 티벳어역과 한역, 그리고 영어번역과 함께 병기되어 있고, 사본의 과편 역시 컬러판 부록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독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비록 매우 적은 분량의 손상된 사본이기는 하지만, 이 과편들의 발견은 초기대승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흥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도의 언어로 쓰인 『보살장경』의 단어, 구문론, 그리고 문장들을 부족하게나마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쳤다. 또한 사본 과편으로부터 재구성한 산스크리트 원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제 역시 온전한 산스크리트 사본이 입수되었을 때에야 가능한 것으로 남겨졌다.

## 2) 라사 사본

2009년에 비엔나과학학술원은 『보살장경』의 온전한 산스크리트 사본을 입수하게 된다. 이 사본은 현재 ‘라사(Lhasa) 사본’이라고 불린다. 2009년 하반기부터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The University of Oslo)과 영국 런던 소아스(SOAS,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연구팀이 이 사본에 대한 협력 연구를 시작하였다. 각 대학의 연구팀을 이끄는 대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브라빅과 파켈이다.

---

20) 판본들의 이러한 비교 배치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다.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스코엔 컬렉션 불교 사본 제3권에서, 기호와 도식을 이용한 설명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란다.

스코엔 컬렉션에 이어 본격적인 『보살장경』 사본 연구에 힘을 모은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자가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간략하다. 이 새로운 사본은 245장(folios)의 종려나무 잎에 쓰인 것으로, 현재 10세기에서 1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현장의 한역과는 달리 총 11개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티벳어역과 법호의 한역에 일치한다. 정판본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연구는 각 품을 티벳어역 및 한역과 대조하여 읽으면서 정확한 음역(transliteration)을 만드는 단계에 있다. 한역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두 한역본 모두에 나타난다. 즉, 필사 시기는 법호의 번역 시기에 더 가까울 수 있지만, 그 둘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판본을 원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본의 정판본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보살장경』과 관련된 과제들의 수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 5. 맺음말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전례 없이 방대한 양의 산스크리트 사본이 발견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했던 4개의 초기대승 문헌들 중 하나로 1999년에 발견된 『지광명장엄경』<sup>21)</sup>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이 한 문헌의 사본을 통해서 『보살장경』을 비롯한 이 문헌들의 복잡한 성립사

---

21) 大正大學綜合佛教研究所 梵語佛典研究會 編, 『梵藏漢對照 智光明莊嚴經 : *Jñānālokāṃkāra (Transliterated Sanskrit Text collated with Tibetan and Chinese Translations)*』, 東京 : 大正大學出版會, 2004.

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했다. 더 많은 산스크리트 사본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보다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도불교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살장경』의 새로운 사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불교문헌학의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2005년, 스킬링(Peter Skilling)<sup>22)</sup>은 『보살장경』의 『반야바라밀품』에서 성문(聲聞)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는 계송들의 일부에 주목하였다. 이 계송들은 법구경(法句經)의 산스크리트본에 해당하는 『우다나바르가(Udānavarga)』와 『간다리어 법구경(Gāndhārī Dharmapada)』, 그리고 부분적으로 팔리(Pali) 『장로게(長老偈, Theragāthā)』에서 공유된다. 그 계송들은 비록 다른 맥락에서 쓰였지만 성문의 전통과 대승의 주류가 공통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는 예로 제시된 것이다. 스킬링은 자신의 논문에 그 계송들을 다른 문헌들의 해당 부분에서 발췌해 놓았다. 그러나 『보살장경』은 산스크리트본이 아닌 티벳어역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헌들과 직접적인 대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살장경』의 온전한 산스크리트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문헌학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혹자는 인도의 언어로 쓰인 불교 사본에 대한 문헌학적 작업이 철학적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물론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범주 안에서 오래된 산스크리트어 경전만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본들은 그것이 오래되었을수록, 초기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수많은 지역과 시대에 걸쳐 전해

---

22) Peter Skilling, "Unsettling Boundaries : Verses shared by Śrāvaka and Mahāyāna texts," *Journal of International College for Postgraduate Buddhist Studies* 9, 2005.

지면서 불교 경전들이 겪었을 변화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본 연구의 핵심과제는 문헌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거친 정판본을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사를 재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불교학 연구 전반에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국내에서는 사본 연구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불교사본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문헌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이는 훗날 불교학의 발전에 의미를 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보살장경』 역시 그러한 연구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것이다.

